문화人

형식적 종교화 탈피 소통의 불교미술 '발원'

프로젝트 아티스트 그룹 '핑크붓다'

핑크붓다는 나이도 전공도 다른 불자 아티스트들의 모임으로 불교미술의 새로운 시도를 통해 대중들과 만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조수연, 전경희, 허효진, 정윤영 작가. 사진=박재완 기자

"핑크붓다가 결성된 지 햇수로 3년이 됐네요. 우리 멤버들은 나이도 전공도 모두 다르지만 불자 아티스트들이 모여 한국불교를 새롭게 해석한 그룹전을 만들고 싶다는 의지는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그룹 이름도 전혀 어울릴 거 같지 않은 핑크와 붓다의 결합으로 지었죠. 가시적 성과보다는 멤버들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해 최선의 결과를 내고자 합니다. 또 끊임없이 그룹의 존재 이유를 정의해 내려가면서 불교 미술의 새로운 장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프로젝트 아티스트 그룹 '핑크붓다'의 조수연 대표는 지난 3년간의 핑크붓다 활동을 이렇게 정의한다. 이명아, 이정은, 전경희, 조수연, 정윤영, 허효진 등 6명으로 구성된 핑크붓다는 회화, 패션, 불교학, 디자인경영, 사운드아트 등 각각 전공이 다른 멤버들이 모여 대중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는 동시에 불교를 대중적으로 알리고자 결성됐다.

2013년 '뱀은 봄에 탈피를 한다' 전을 시작으로,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서울대환우와 가족들과 함께한 2013년 '핑크붓다–꿈을 붓다' 전 · 2014년 '핑크붓다–꿈을 쌓다' 전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해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왔다. 첫 번째 전시 '뱀은 봄에 탈피를 한다'는 허물을 벗고 과감히 자기 변신을 시도하는 뱀처럼 불교미술 역시 종교화 형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각을 담고자 하는 핑크붓다의 의지가 반영되었다.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한 2014년 '핑크붓다–꿈을 쌓다' 전은 탑 쌓기를 주제로 환우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고자 했다. 전시를 기획한 정윤영 작가는 개인이 처한 상황 속에서 잊고 지냈던 '꿈'이라는 키워드를 되짚고자 했다고 전한다.

환우들과 함께하는 탑쌓기 등
꿈과 희망 전하는 전시 기획
프랑스 등 해외전시 계획도

"불교에서 탑은 부처님에 대한 칭송과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이번 전시는 환우와 그 가족들에게 소원지를 받아 아크릴 판에 붙여 탑을 쌓았어요. 이 전시의 목적은 탑의 완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의 염원을 함께 담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탑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죠. 언제 탑이 완성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앞으로도 꾸준히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형식의 프로젝트를 진행해 탑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핑크붓다는 기획에서 전시까지 모든 프로젝트의 과정을 멤버들이 함께 의논하고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한다고 허효진 작가는 말한다. "수차례 회의를 통해 전시의 성격을 규정하고 진행 방향을 결정해요. 또한 팸플릿의 텍스트 구성과 디자인, 로고 제작, 전시장 작업 등 멤버들 각자 역할을 분담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런 방식은 협업을 통해 결속력을 다지는 동시에 작가들 개개인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핑크붓다의 활동은 그룹의 성장과 함께 개인도 성장하는 진행형의 작업이라고 전경희 작가는 강조한다. "작가들은 대부분 혼자서 작업을 하다보니 혼자만의 생각에 멈출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멤버들과 끊임없는 논의를 통한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 작가 개인도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같이 모여서 공동의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앞으로 핑크붓다는 하반기 '맥'을 주제로 하는 전시를 기획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멤버들 각자의 생각과 의견을 작품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전시라고 조수연 대표는 말한다. "한국에서 '맥'은 인맥 수맥 등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식물도 우주도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맥과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인드라망으로 연결된 인간의 삶도 이 범주에 포함되죠. 이런 의미를 작가 개개인의 작품 속에 담고자 합니다. 또한 이런 작업들이 일본, 이태리, 프랑스 등 해외 전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불교미술의 기존형식의 탈피를 기원한 '뱀은 봄에 탈피를 한다'의 전시 전경

'핑크 붓다–꿈을 붓다' 전에서 완성된 '등'

모래 같은 세상을 누가 헤아리겠는가?

임연태 시인 山寺에 깃든 선비의 詩心

㉓ 논산 관촉사 (下)

관촉사를 대표하는 '은진미륵' 즉 석조미륵보살입상은 고려 말의 목은 이색이 시로 읊은 이후 조선의 선비들에게도 시의 테마가 되곤 했다.

같은 불상 다른 느낌, 무상 속의 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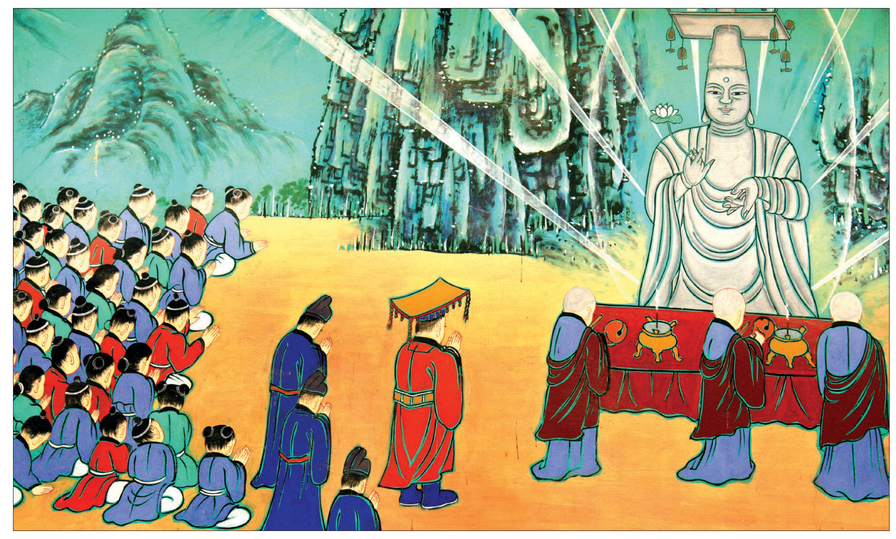
조선 중기의 선비 성현(成俔 1439~1504)의 문집 〈허백당시집(虛白堂詩集)〉 제2권에 수록된 '관촉사'라는 제목의 시를 보자.

노방유고찰(路傍有古刹)
초초과웅강(超超跨雄岡)
정중장륙신(庭中丈六身)
외아용원창(嵬峨聳圓蒼)
석유호사자(昔有好事者)
구차백척장(䃸百尺長)
항하억만계(恒河億萬界)
변화수능량(變化誰能量)
관이시혜로(灌以施慧露)
촉이명호광(燭以明毫光)
사제사황홀(沙梯øy惚)
후인안족상(後人安足詳)
당시루전성(當時樓全盛)
금벽다휘황(金碧多輝煌)
지금취매몰(至今就埋沒)
유유담경당(惟有談經堂)
(후 4행 생략)

길가에 오래 된 절이 있어
웅장한 언덕을 넘어가니
뜰 가운데 장육신이
높이 하늘로 솟아 있네.
옛날에 호사가들이
이를 백 척이나 된다고 과장했었구나.
모래와 같은 많은 세계의
변화를 누가 헤아릴 수 있으리
물을 대어 혜로(慧露)를 베풀고
촛불로 부처님의 눈썹 사이를 밝히네.
사제촌의 일은 황홀했다는데
후인 어찌 자세히 알리오.
당시의 누각은 전성기로
금벽에 휘황찬란했었지만
지금 매몰되어
오직 경을 배우는 당만이 있네.

성현의 시도 긴 편이다. 그러나 경쾌하게 읽힌다. 관촉사의 풍경을 묘사하며 미륵보살입상의 조성 설화와 영험을 즐겁게 풀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사제촌의 일은 황홀했다는데'라는 구절은 혜명 스님이 석불을 세우는 묘안을 알게 된 기이한 설화를 끌어 들인 것이다. 그 아름다운 설화는 이야기와 기록으로 전해지지만, 설화 속의 깊은 신앙적 감동을 누가 다 알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것은 이미 시대가 달라져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또 '지금 매몰되어 오직 경을 배우는 당만이 있네'라고 묘사하고 있으니 성현이 살고 있는 시대의 관촉사는 고려 때의 '전성기'에 비해 많이 축소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앞 시대의 시인과 후대의 시인이 하나의 불상을 보고 시를 쓰지만 그 느낌이나 해석의 방향은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 그것이 무상인 것이다.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의 낙성 법회에 고려 광종이 직접 참석한 장면을 그린 미륵전 벽화.

선비의 눈에 비친 불교의 모습

생육신(生六臣)의 한 사람인 남효온(南孝溫 1454~1492)은 벼슬을 버리고 전국의 명승을 유람하며 많은 글을 남겼다. 하늘의 뜻인 유학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뼈에 사무친 선비의 방랑. 그의 발길이 관촉사를 지나쳤을 리 없다. 그의 문집 〈추강선생문집(秋江先生文集) 제1권에 '관촉미륵'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다.

광종굴만승(光宗屈萬乘)
하배상문자(下拜桑門子)
상교동동화(象教動東華)
이불조어차(爾佛肇於此)
기담해궁위(奇談駭宮°ㅐ)
궤론경여리(詭論驚閭里)
유원필기도(有願必祈禱)
장소루만지(狀疏累萬紙)
(4행 중략)
노승강영아(老僧强迎我)
좌아화도리(坐我øM圖裏)
오애이청정(吾愛爾淸靜)
언방부족희(言 u不足喜)
억석유도시(憶昔有道時)
성왕경소지(聖王敬所止)
강장만목거(綱張萬目擧)
독공천하리(篤恭天下理)
왈자왕기이(曰自王紀弛)
민쟁사괴이(民爭事怪異)
가련오복권(可憐五福權)
이여석대사(移汝石大士)

광종이 천자 권위를 굽히고서
불문의 제자에게 내려서 절했지.
불교가 우리 동방 진동시킬 때
미륵불 여기 처음 세워졌네.
기이한 얘기 궁중을 놀라게 하고
괴이한 의논 민간을 경동시켜서
소원이 있으면 반드시 기도하니
소지 올린 종이 수만 장이 되네.
늙은 승려 억지로 나를 맞이하여
불화 그려진 속에다 나를 앉히네.
내 그대의 청정함은 사랑하지만
말이 클 뿐 기뻐할 것은 못 되네.
생각건대 옛날 도가 있던 시대
성왕은 모든 일에 경건했으니
벼리를 펼치면 그물이 들리듯이
독공하여 천하가 잘 다스려졌지.
왕도의 기강이 해이해진 때부터
백성은 다투어 괴이함 일삼으니
가련하다 오복을 내리는 권한이
그대 돌부처에게 옮겨간 것이여.

남효온의 시도 길다. 그런데 도입부터 비판적이다. 유학에 뿌리를 내린 선비의 마음에 불교의 교리가 통할 리 없지만, '관촉미륵'의 조성 배경을 소박한 민간 신앙으로 이해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고 '기이한 이야기' '괴이한 의논'으로 몰아세우는 것이다. 목은 이색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시를 열고 있다.

시의 후반부에서 눈앞의 풍경과 스님을 사뭇 부정하지는 않지만, 유학의 도가 실현되는 세상은 오지 않고 불교의 습속이 전해지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마하연 투어

마하연투어 강력 추천상품

– 대만 불광사 공승법회 5일 8월 16일 출발

– 중국 4대 불산
지장도량 관음도량 6일 6월 28일 출발
보현도량 (아미산) 5일 8월 11일 출발
문수도량 (오대산. 석가장) 5일 8월 20일. 9월 16일 출발
구채구. 황룡 6일 7월 10일 출발
민족의 영산 백두산 5일 7월 3일, 7월 17일, 8월 27일 출발

– 황금불탑의 나라 미얀마
동방의 정원 양곤/바간/달라 5일 7월 16일, 8월 6일, 8월 19일 출발
불탑과 호수 양곤/바간/헤호 6일 7월 9일, 7월 21일, 7월 30일 출발
황 금 불 탑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7월 19일, 8월 30일 출발

– 은둔의 나라 라오스
라오스 비엔티엔/방비엔/루앙프라방 5일 8월 14일 출발

– 세계문화유산 스리랑카
완전일주 스리랑카 8일

–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인도
인도 / 네팔 13일 11월 20일, 2월 27일 출발

"미얀마 위빠사나 수행" – 상담문의 (수속대행)

태국 방콕/파타야 5일 요금문의
캄보디아 씨엠립 5일 요금문의
3대불교성지 족자카르타 보로부두르 5일 요금문의
"힐링요가" 여행 인도 5일 요금문의
인도 8대 성지순례 10일 요금문의
네팔 핵심일주 5일 요금문의
스리랑카 핵심 순례 / 인도양의 보석 몰디브 8일 요금문의
북유럽(노르웨이,덴마크,핀란드,스웨덴) 9일 요금문의
동유럽 3개국 9일 (음악회와 왕의 호수 쾨니히) 요금문의
하와이 5일 요금문의

www.mahayeon.com
(주)마하연 투어 ☎ 02)365-7747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마하연투어 공통사항
① 모든경비 포함 ② 모든 상품 품격 진행
③ 타여행사 비교 필수 ④ 2억원 여행자 보험 가입